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채식주의 트렌드

폴란드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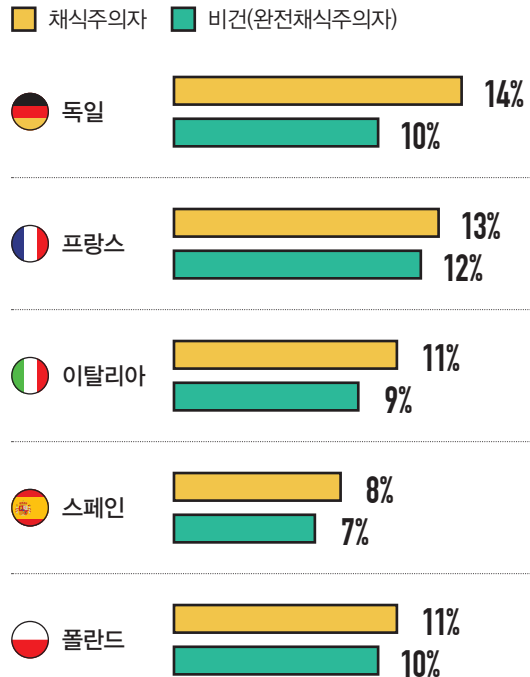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자리잡은 웰빙

- 유럽에서 웰빙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웰빙의 범위 또한 유기농, 유통과정, 포장재 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 웰빙의 방식 중에서도 채식주의는 특히 몇 년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의 채식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 증가하는 폴란드의 채식인구

- 최근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폴란드 역시 서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의 영향을 받아 채식시장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폴란드 전체 인구 중 채식인구는 11%에 달하며, 그 중 10%는 비건(완전 채식주의자)에 해당한다.
- 독일의 경우 인구의 14%가 채식주의자에 해당하는데,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큰 채식시장을 지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폴란드의 채식인구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 전통적으로 육식 위주의 식문화를 지닌 폴란드에서 채식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웰빙 라이프와 채식주의 열풍이 폴란드 젊은이들의 식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 유럽국가의 인구 대비 채식주의자 비율



출처 : Statista(www.statista.com)

##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친 채식주의의 열풍

- 폴란드의 채식주의의 열풍은 식품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음식점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선택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메뉴 또한 샐러드, 버거, 스시, 라면 등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 이밖에도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료품점, 쿠팡클래스, 케이터링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이 연쇄적으로 발달하는 추세다.

## 채식 트렌드와 함께 떠오른 한국의 김치

- 폴란드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보편적으로 감자, 오이피클, 자우어크라우트(Sauerkraut)를 곁들여 먹는다. 자우어크라우트는 양배추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으로 한국의 백김치와 유사한 음식이다.
- 자우어크라우트를 소비하는 방식 역시 김치와 유사하다. 김치처럼 메인디쉬에 곁들여 먹거나 김치찌개처럼 자우어크라우트를 끓인 카푸시니악(kapuśniak)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폴란드에서 김치는 이국적이지만 낯설지 않고, 건강하면서도 매력적인 음식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난 2017년도는 폴란드의 유명 매거진 Warsaw Insider가 비건 트렌드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에 김치를 함께 소개하기도 했다.



1. 폴란드인에게 익숙한 떡
2. 한국의 백김치와 유사한 자우어크라우트

2

## 요리재료에서 간식의 역할까지

- 감은 글루텐프리 식품이자 비건 간식으로서 폴란드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폴란드의 하이퍼마켓에서는 김밥용 감은 물론, 간식 대용으로 좋은 김스넥 등 다양한 김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 쫄깃한 떡에 익숙한 폴란드소비자들

- 외국에서는 떡의 쫄쫄한 식감을 다소 낯설다고 평가하는 편이지만, 폴란드에서만큼은 그렇지 않다. 수제비와 비슷하고 떡과 유사한 식감을 지닌 파스타 노끼(Gnocchi)를 즐겨먹는 폴란드소비자들은 떡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편이다.
- 다만, 쌀을 번역할 때 ‘Glutinous’로 직역하는 것은 글루텐 함유 제품에 대해 민감한 유럽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마케팅 필요

- 현재 폴란드에는 채식주의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따라서 웰빙, 발효 등의 건강한 이미지를 지닌 한국식품은 폴란드시장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채식주의는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건강한 삶, 환경을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의 일환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 또한, 유럽소비자들은 원재료에 민감할뿐아니라 채식 시장의 경우 라벨링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비건인증, 유로리프 등의 라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